

만형 어머니를 찾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졸병이 아니라 수많은 졸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고)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3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86%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자원에 표시해준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6%

< 보 기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친밀함의 정도)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40%)

**문학개념이 정리!!!**

• **개방** :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느끼는 느낌

( **친밀감** : 개방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 )

33. ㉠, ㉡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4%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권력, 이상, 예술.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③ 함께 다녔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X

같은 내용의 선택지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소설

○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채,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 춘풍 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없기로서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오년 모일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A]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통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채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불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김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닷 돈 받고 도포하기, 엿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  
 [가] 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녁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설 새 없이 사 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으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릴 것이 바이없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랑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명명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냥을 대돈번'으로

얼어내어 박물군자인 채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내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오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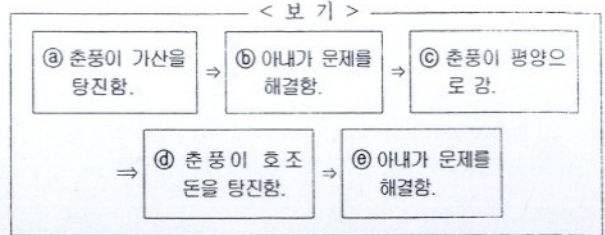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중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꾼 상남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니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삐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答杖) 끌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삐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우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라, 본부에서 물어주라?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삐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본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관자: 무관의 공복, 첩리.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돌던 무관.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7%



- ① ㉓와 ㉔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㉔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㉕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㉓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㉕를 만류한 것은 ㉓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㉔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㉕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35번 문제 <보기> 먼저 읽고 주제를 파악하기!!!

35.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82%

< 보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 실질적 가장: '춘풍의 처'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거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3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9%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성숙한 사랑. 진정한 사랑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역설적 표현  
→ 우리 사랑을 위해 필요한 존재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랑, 자연)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묘한 이 자리에  
불타는 꽃뿔만이 있어야 하네!  
= 이별. 문상. 바깥. 안락함.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자유의 시간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자유의 시간을 견디자!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벗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 이별한 상황에서 자의. 진정한 사랑의 각양  
상황. 현실. 현실 대응 방식.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벗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흙」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표현기법 → 1차적(우선적) 효과  
관련대상

→ (가)와 (나)를 통해 표현 기법!!!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 보기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억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견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 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억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 보기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 ④ 화자는 죽음을 잊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 42번 확인하고  
주제서장하기!!

# 국어 영역(B형)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소설

S#1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떠세\* 두 남의 돈을 무죽같이 때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옥임이

원체 예쁜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는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러나? 이젠 무슨 객설야.” **정례어머니**

하고, 달려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쩍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빼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한 번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나,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옥임이**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난 말이야.” **정례어머니**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려서 ㉡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단!” **옥임이**

하고 허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긴 처음 당하는 이런 봉육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매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르고 싶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섣뜻 몸을 빼쳐 ㉢ **열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썩 들었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는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걸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뺨시가 어느 덕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 2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들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정례**하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섬지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뺨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졸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샅룩하여 비웃으며, 버섯이 사람 틀을 헤치고 ㉣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약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체득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 염상섭, 「두 파산」 -

- \* 떠세: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쟁취하고 억지를 쓰는 것.
- \* 생화: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 \* 취체역: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 \* 반민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 \* 체득을 주다: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40. 뒷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갖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0%)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의 중심 대상**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현재를 서술하다가 과거를 서술하는 등 현재와 과거를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전개**

포커법 **효과**

[대화사] 3곡.

제 2수 연약하고 양한 처지기에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할지 아니하였나  
노을에 피웠다고 한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꽃을 피우려는 관상하니 특한 향기가 방안에 퍼드구나.

제 4수 눈물레중 피웠더니 너 [대화] 과연 피었구나.  
꽃에 같이 피려 격자도 등성구나.  
대화, 너더 많은 향이 술잔에 어거었니 취해 놀라 하노라.  
제 5수 황혼에 뜬 달은 너와 만발 겨를 하였나?  
잔 안에서 잔들 꽃이 향기를 품으며 향이하는구나.  
내 이제 달과 마회카 벗인 줄 불췌고 하노라.

# 국어 영역(B형)

15

제 3수 양향에 개탄한 재래의 옥림이 고운 자질이며, 눈속에 피어난 대화구나.  
주한 향기를 품으며 재력함을 가리니  
아직도 많은 향의 불을 품는 재는 재는 2곡 더 보기가 하노라.

41. ㉠~㉣와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6%
- ① '옥임'은 ㉠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로 향했다.
  - ④ ㉠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로 향하면서 ㉠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42. <보기>를 통해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두 파산」은 금전적인 어려움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정신적 파산**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파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처나려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몰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파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43.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10%)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10%)
- ⑤ '중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잊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 **정례 모친의 잔**  
 축(獨) 잡고 갖가지 사랑홀제 암향부동\* 허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 **정례 모친의 잔**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를인가 흥노라 <제3수>  
 정향(清香)이 잔(巵)에 잊스니 취(醉)코 놀너 흥노라 <제4수>  
 황혼(黃昏)의 돛은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니 → **달과 대화가 조화**  
 합리(閤裡)의 즈든 꽃향기 노아 맞고야  
 너 엇지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흥노라 <제5수>  
 너와 대화가 벗인 줄 몰랐나 → **달과 대화가 벗인 줄 몰랐나**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합리: 방 안.

4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1%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10%)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5%

**<보기>**  
 「대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축 잡고 갖가지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즈'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은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